

☆☆☆☆☆☆☆☆☆☆☆☆☆☆☆☆☆☆☆☆☆☆☆☆☆☆☆☆☆☆  
 ☆☆☆☆☆

# 외원에 대한 교회병원으로서의 의견



대구 파티마 병원

에 벅 스 수녀

☆☆☆☆☆☆☆☆☆☆☆☆☆☆☆☆☆☆☆☆☆☆☆☆☆☆☆☆☆☆

☆☆☆☆☆☆

## 대구 파티마병원에서의 외원의 영향

1956년 경상북도 대구시 신암동에 자리잡은 파티마 의원은 차차로 성장하여 1962년에 와서는 병원이 되었고, 지금은 침대수를 70개에서 160개로 늘리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 발달하게 된데는 오늘 말씀드리려는 외국 원조의 힘이 많이 있었던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일 것입니다.

사실상 파티마병원이 자리잡고 있는 현 위치에서는 병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었던 이유도 또한 발전에의 보탬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파티마 병원에서는 유료환자 이외에도 많은 수의 빈자들이 매일 매일 문을 두드리고, 적으나 많으나 혜택을 입을 돌아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수의 환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까지에도 물질적인 원조가 컸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우선 과거 즉 지금까지 파티마 병원에서 외원의 효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인적원조가 컸었습니다. 처음 설립때부터 외국 의사 수녀님께서 오셔서 의원을 시작하였고, 그후에도 간호, 경리, 행정등 외국 수녀님들께서 시작하시며 기초를 세워놓으셨고 계속해서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약품 원조나 기계품 원조등도 심심치 않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기타 영양품이나 의류

품들도 지난번 정부에서 허락할 때까지 계속 원조받아 빈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중에도 파티마병원은 특히 건축물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1956년 AFAK(Armed Forces Aid to Korea)와 로마 포교성의 원조로 파티마 의원이 현 위치에 처음 자리잡게 되었고, 1959년과 62년 사이에 오로지 카톨릭부인회와 카톨릭 미세레울의 원조로 대구 대교구의 후원 아래 현 입원실이 있는 3층의 건물과 그 부속건물들이 완공을 보았고, 다시 1965년 미세레울의 원조로 3층의 간호원 기숙사가 신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와서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 외래진료소 건물이 미세레울의 원조와 서독정부의 후원으로 지난 1972년 9월 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파티마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외원의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외국원조를 토대로 삼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티마병원은 급히 자라고 있어, 시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큰 병원의 형태로 탈바꿈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건물상으로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고 적은 곳에 떼어부친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 지리상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내와 지방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병원 규모는 앞으로 좀 더 커져야만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현재 파티마 병원은 충분하지는

못하지 마는 끊이지 않는 외원의 덕택으로 조금씩 자라며, 그러므로서 운영상에 문제점은 해소되어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 반면, 만약 외원의 장애에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희망할 점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급한 것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의료가구들이나 막대한 건축원조금 등일 것입니다.

받는 쪽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우스울지 모르겠으나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물품들이나, 시효가 지난 또는 불필요한 약품들을 비싼 운임을 들이고 어려운 세관 사무를 통하여 보내지고 받는다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어 잡니다.

또한 거액의 원조를 받는 건축면에 있어서도 받는쪽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건들이 첨부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외원으로 건설되는 건물의 설계도 외국에서 외국인이 하고 건축 계약이나 건축감독등도 그 외국인이 정하는 동시에 건축설계가

실정에 맞지 않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세세한 부분에 까지 일일이 외국에 있는 설계자에게 서신으로 문의를 하여 허락, 내지 실정을 모르는 거부할 당하여야 하는 처지가 될때에는, 건축시일이 지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건축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에 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할 점도 있으나, 현재까지로 보아서는 대구 파티마병원은 만족하게 외국 원조를 받아 쓸모있게 써 오도록 힘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액의 원조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소액의 원조라도 앞으로 계속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대로 또한 운영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모든 것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것에 희망을 가지고 매일 매일 환자를 맞아 도와 보고자 하는 것이 파티마병원의 장래의 계획이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72년도 회계보고

수 입		지 출	
1972년도 년회비(18개병원)	210,000원	협회지 (3권 1호)	76,020원
제 7 회 세미나 참가비	94,000원	"      (3권 2호)	89,770원
제 8 회 세미나 참가비	174,000원	제 7 회 세미나 경비	147,670원
1971년도 이월금	89,806원	제 8 회 세미나 경비	165,690원
		사 무 비	16,750원
		차기 이월금	71,906원
	합계 567,806원		합계 567,806원

## 1972년도 사업보고

1. 세미나 개최 (2회)
  - 7 회 세미나 (72.4.22) 서울 분도회관
  - 8 회 세미나 (72.11.4) 대구 파티마병원
2. 회지발간 (2회)
  - 3 권 1 호.....병원사목
  - 3 권 2 호.....지역사회 의학